



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충분히 농가에 알리고 협회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처하도록 양계농가 계몽에도 월간양계가 나서서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월간양계와 양계협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양계인들이 생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 **양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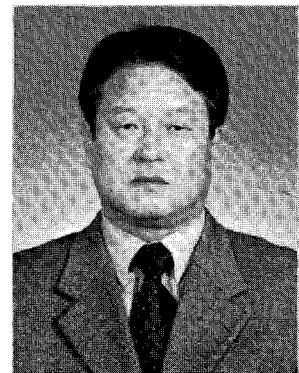
## 큰알 위주의 계란 유통체계 신중한 고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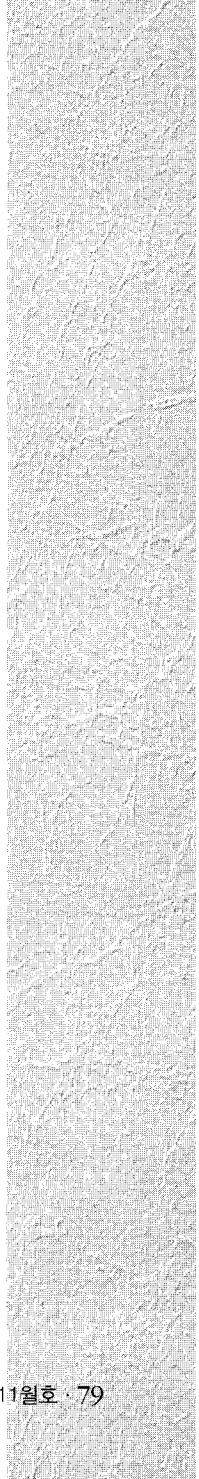
김 선웅 봉림농장 대표/본회 이사

**월**간양계 창간 35주년에 즈음하여, 채란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월간양계에 축하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최근 채란업계는 몇 년만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생산자 가격이 최근 15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지난해 93원의 최고가격을 보여줬던 것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의 물가상승률에 비한다면 결코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계란도 이정도는 주고 사 먹어야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고기의 계란가 형성에도 불구하고 채란농장의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관리를 잘하고 생산성이 좋은 농장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잊을 수 있는 시기임에 틀림없지만, 노계를 보유한 농가나 질병 관리가 미흡한 농가들은 오히려 고전을 면치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채란업계의 양면성을 볼 수 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는 몇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질병관리에 아직도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질병퇴지의 일환으로 ND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각종 교육과 백신약 지원 등을 통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지난 90년대 중반 채란업계를 뒤흔든 가금티푸스도 백신의 사용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아리 입식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노계를 2, 3차례 환우하면서 느슨한 방역의식으로 질병관리에 한계를 보여주면서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 질병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속에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다 철저한 질병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양계 협회, 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현장중심의 사전 질병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를 중심으로한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큰알 위주로 형성되고 있는 국내 유통시장을 품질위주의 유통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큰알 위주의 생산 체계는 노계 환우를 부추기고 농가의 생산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또한 노계에서 생산된 계란은 품질면에서 주령이 낮은 닭에서 생산된 계란보다 품질면에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유익한 계란 생산 체계확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깨끗한 계란도 소비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1인당 계란 소비를 가장 많이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 생산지에서 생산된 계란은 최소 3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전달 될 수 있는 유통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아침에 부담없이 날계란을 밥에 비벼먹는 식습관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신선한 계란이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확립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경우 일본 못지 않은 계란 소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계란 소비촉진을 위해 가공란의 활성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로 소비자들의 식탁에 다양한 종류의 계란 가공제품으로 손쉽게 채워질 수 있도록 가공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것으로 본다. 최근의 고난가가 이어진다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자들도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의자 조금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며, 전 양계인들이 무임승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의무자 조금제도에도 협회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해 본다.

월간양계 창간 35주년을 축하하며, 전 양계인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계**